

# ‘호랑이 경영자’ 구자업 회장, 한국 넘어 중동·아프리카로 시장 확대

LS그룹 계열사인 LS전선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회사로 1962년 5월 설립된 한국케이블공업에서 시작됐다. 이후 1966년 금성사에 흡수합병 됐다가 1969년 금성전선으로 분리됐다. 1995년 2월 금성광통신을 흡수합병한 뒤 LG전선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2003년에는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돼 LG전선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돼 LG전선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돼 LG전선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2008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LS로 상호를 변경했고 이후 전선 및 기계부품 제조 부문을 분할해 각각 LS전선과 L멘트론이 설립됐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북미 최대 전선회사인 슈퍼리어 에식스(Superior Essex)를 인수했고 이듬해에는 중국 호북용딩홍치전기(현 LS홍치전선)를 인수했다.

현재 LS전선은 차세대 전력케이블 분야의 기술 개발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이니그라벨2 서울 강남구 청담동 90-10

올리고 있다. 앞서 2019년 11월 세계 최초로 낮은 저항으로 높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초전도케이블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초전도케이블로 새 전력인프라를 건설하려 하는 신흥국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9년 9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제 전차선 개발에 성공했다. 강제 전차

선은 기존 구리선을 통한 전력 전달 방식과는 달리 알루미늄바를 이용해 전력을 전달하는 차세대시스템으로 단선의 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도 적게 든다.

이러한 LS전선을 이끄는 구자업 회장은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태어나 명지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1976년 26세의 나이로 범한해상화재보험(현 KB손해보험)에 사원으로 입사해 20년 동안 근무하며 상무까지 승진했다. 이후 LG건설(현 GS건설)로 자리를 옮겨 대표이사를 지냈다.

희성전선(현 가온전선) 대표이사 부회장, LS전선 대표이사 부회장과 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뒤에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조력자형 리더로 불렸다. 하지만 이후 공격적 경영을 보여주며 ‘호랑이 경영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는 북미, 유럽, 동

남아, 중국 등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해외사업 확대전략을 펼쳐서다. 또 그가 호랑이이어서 이 점과도 맞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LS전선은 2016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두 6700만달러 규모의 초고압케이블 계약을 2건 체결했으며 그해 캐나다에 5400만달러 규모의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와 미국 노후 해저케이블을 교체하는 47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네팔의 국영통신사 네팔텔레콤과 네팔 동부지역에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계약을 수주했고 그해 6월에는 쿠웨이트의 첫 번째 신도시인 알 무들라에 송전망을 구축하는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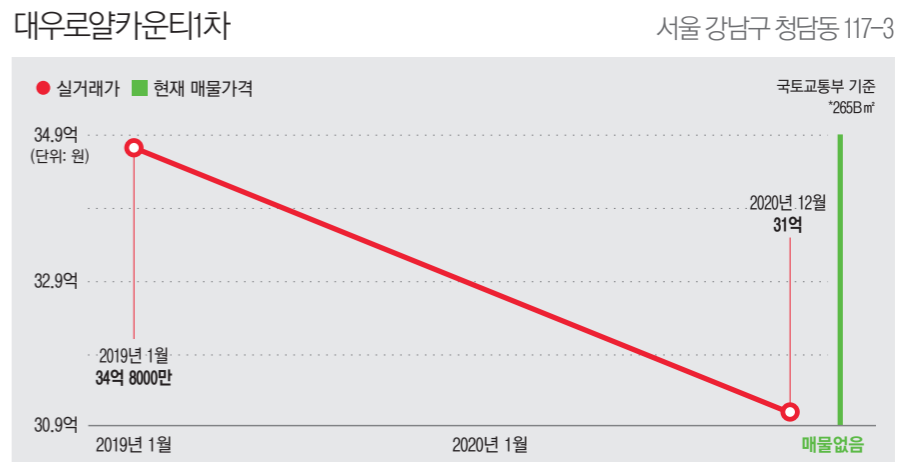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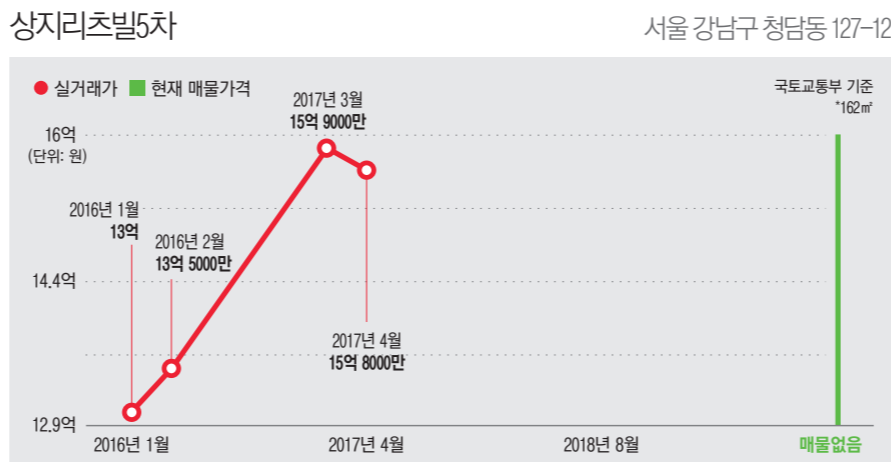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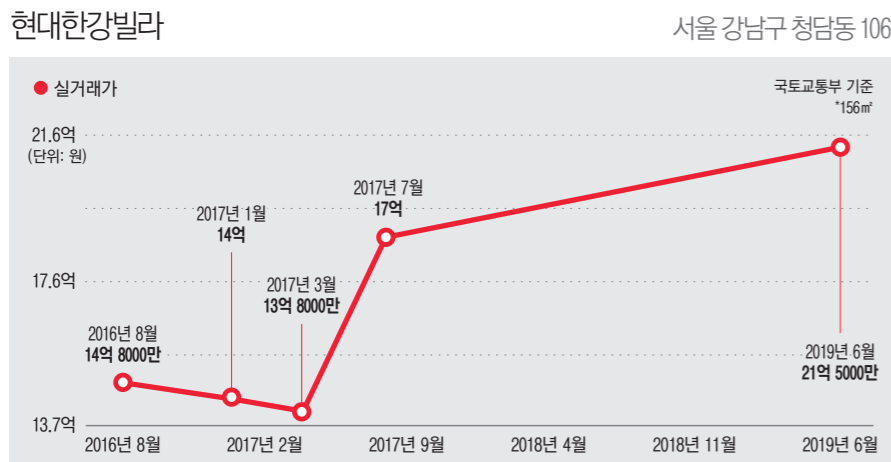
한편 LS전선은 이집트에 아프리카 첫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전선업계 첫 아프리카 생

산거점으로 화제가 됐다. 또 LS전선은 지난해 1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산업도시에 현지 케이블 전문 시공사 이집트만(MAN)과 합작 법인 LSMC를 설립했다.

아울러 LSMC는 최근 이집트 전력청과 신도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고, 공장 준공과 함께 양산에 들어갔다. LSMC는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철도에 가설되는 가공 송전선을 생산한다. LS전선 초기 지분투자금은 35억 원 규모로, 향후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업**  
현)LS전선 회장  
1976년 11월 ~ LG화재  
2000년 3월 ~ LG건설 대표이사  
2009년 1월 ~ LS전선 대표이사 회장  
2013년 1월 ~ JS전선 대표이사 회장  
2013년 1월 ~ 가온전선 대표이사 회장  
2013년 1월 ~ LS전선 회장



**김창범** 현)한화케미칼 부회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최고 정보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1981년 공채

로 한화그룹에 입사해 한화케미칼 PE사업부장 상무, 한화케미칼 PVC 사업부장 전무, 한화케미칼 중국 남보법인장 전무 등을 역임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영업도 한 영업 전문가로 통한다. 이후 한화L&C(현 한화첨단소재)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그룹 위기 때마다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인물로 평평이 나 있다. 특



**남우현** 현)가수, 탤런트  
남우현은 팀의 리더인 성규와 함께 메인보컬로 활약하면서 수많은 팬을 보유한 인기스타로 발돋움했다.

뛰어난 가창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음이 일품인 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가창력 외에 댄스, 작곡 등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선보인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팔방미인 아이돌’로 평가된다. 남우현은 2012년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 출연, 2013년 SBS 드라마 ‘모던파머’ OST 음반 참여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그는 뛰어난 음악성을 바탕으로 직접 쓴 곡인 ‘Beautiful’ ‘눈을 감으면’ 등이 히트곡 반열에 오르면서 작곡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직접 작곡한 솔로 2집 앨범 타이틀곡 ‘너만 괜찮다면’은 SBS 음악프로그램 ‘THE SHOW’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순형** 현)세아그룹 회장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강관(철로 만든 파이프) 및 특수강 분야에 특화된 철강전문기업인 세

아그룹의 3대 경영인이다. 1974년 그룹 계열사인 해덕기업 상무로 경영에 참여 후 1976년 해덕스틸 대표이사, 1984년 해덕기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1995년 세아그룹 초대 부회장을 역임한 뒤 2001년 지주회사 세아홀딩스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001년 지주사 세아홀딩스가 설립되면서 그의 형인 고(故) 이윤형 회장과

함께 그룹을 공동경영 했다. 2013년 이윤형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경영권을 이어받았고 이순형 회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는 원칙을 기업경영의 모토로 삼으며 회사를 키웠다. 세아그룹은 특수강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다.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유탑건설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내달 분양

**울산시 중구**  
유탑건설은 울산시 중구 우정동 187-3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2개동) 규모의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312가구 가운데 1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밝혔다. 전 가구 전용면적 84㎡ 타입이다. 유블레스 센트럴파크는 탁 트인 남향 위주의 조망을 할 수 있다. 울산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태화강의 자연경관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친환경 아파트로 건설에서 탁 트인 태화강뷰를 누릴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도보로 태화강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의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조망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태화강 국가정원의 푸른 대나무 숲과 강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고, 산책 및 여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인근에 태화강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울산시민공원, 태화강 국

가정원, 태화루, 울산향교, 울산시립미술관(2021년 개관예정) 등이 있어 편리하게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또 단지 내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고 입주주민들의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공유할 취트니스, 육아전담을 위한 어린이집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두 곳의 어린이 놀이터,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클럽 등 유용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반경 2km 내 우정초와 울산중고, 성신고 등 16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영화관과 젊음의 거리 상권, 뉴코아 아울렛,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쇼핑시설과 울산시청, 울산병원 등의 편의시설도 근거리로 있다. 또한 남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중구 교동의 핵심에 위치하며 시내권 동-서 이동축의 중심에 있어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31번 국도와 북부순환도로가 인접해 울산 도심은 물론 부산·경남권으로의 접근성 역시 양호하다. 견본주택은 남구 달동 1296-5(교통안전공단

좌측)에 내달 19일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2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월 23일 1순위 청약, 3월 3일 당첨자 발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 순으로 진행 된다.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 조감도 유탑건설

###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 토지 불법이용 3건 적발

**전남도**  
전남도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1126만㎡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5만9200㎡를 대상으로 최근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거래면적의 94%인 40건·5만6200㎡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 문제가 없었으나, 법을 위반한 미이용이 2건·간 1800㎡, 타 목적 이용은 1건·1200㎡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주거하지 않은 미이용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실태 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주거용은 3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등 이용의 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며 “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